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

WEEKLY REPORT  
VOL.10  
2025.08.18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 TOP HEADLINES

- 제6조 탄소크레딧, CORSIA 편입 절차 본격화
- ICAO, CORSIA 탄소 크레딧 승인 가속화 촉구
- 중국 탄소시장, 가격 안정세 속 상하이 'ETS 강화 계획' 가동
- 말라위·몰디브, 첫 Article 6 보고서 제출, 국제 탄소시장 본격 참여
- 국제 합의 무산 속 UNEP,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의지 강조
- ICE, D&B 데이터 활용해 비상장기업 기후 리스크 분석 확대
- JAL, SAF 환경가치 거래 플랫폼 첫 실험 완료
- 미국 데이터센터 업계,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정 완화 요구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 제6조 탄소크레딧, CORSIA 편입 절차 본격화

새로운 파리협정 제6조 탄소인증 메커니즘 (PACM)에서 발행되는 탄소크레딧을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CORSIA)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본격화됨.

지난주 열린 제6.4조 인증 메커니즘 감독기구 회의에서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는 PACM 크레딧의 적격 범위, 레지스트리 상의 크레딧 이관·사용·소거 절차, MRV 요건 정합성 등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받음.

ICAO는 UNFCCC 사무국에 PACM 최신 현황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UN이 승인한 모든 표준 및 지침을 포함해 제6.4조 관련 크레딧 발행 최신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확인

현재 CORSIA 1단계 (2024~2026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격 크레딧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저장의 역전 리스크 (Reversal Risk)를 다루는 표준 초안 논의, 쿡스토브 프로젝트의 기준 변경 등을 논의



# ICAO, CORSIA 탄소 크레딧 승인 가속화 촉구

ICAO가 최근 상쇄제도를 둘러싼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CORSIA 탄소 크레딧 승인 절차를 앞당길 것을 공식 촉구함.

현재 항공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격 크레딧은 극히 제한적이며, CORSIA 1단계(2024~2026)에서 필요한 크레딧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

크레딧 공급 시 참여국이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프로젝트 개발자가 해당 승인이 철회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때문

ICAO는 CORSIA 1단계 동안 최대 1억5천만 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급 지연으로 2028년 1월 제출 기한 전까지 필요한 크레딧이 시장에 충분히 풀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밝힘.

다만 Verra, Gold Standard의 보험 절차 도입과 PACM 크레딧의 편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공급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CORSIA 기술 자문기구 (TAB)는 PACM 크레딧이 준비되는 즉시 적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전됨.



# 중국 탄소시장, 가격 안정세 속 상하이 ‘ETS 강화 계획’ 가동

지난주 중국 국가 탄소시장은 주요 정책 업데이트 부재 속에서 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큰 움직임 없이 안정세를 보임.

다만 상하이 정부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공개. 해당 계획에는 절대 배출 상한 설정, ETS 규제 대상 업종 확대, 유상 할당 비중 증대 등의 정책 우선순위가 포함

주요 내용:

- 2028년부터 연간 1만 톤 CO<sub>2</sub>e 이상을 배출하는 대학, 병원 등 공공기관도 제도에 편입
- 아산화질소,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시장 관리에 포함
- 지속가능 항공연료, 그린 메탄올, 바이오가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녹색연료 활용에 대한 배출 회계 연구 및 방법론 개발 추진

현재 상하이 ETS는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상하이 탄소시장 시범사업은 중국 정책당국이 국가 단위 제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



# 말라위·몰디브, 첫 Article 6 보고서 제출, 국제 탄소시장 본격 참여

말라위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첫 보고서를 UN에 제출하며, 2021~2030년 동안 100만 톤 이상의 ITMO 발행을 목표로 한 계획을 공개

골드스탠다드에 등록된 ‘Biomass Energy for Conservation Programme’을 첫 승인 활동으로 지정, 조리기구 보급을 통한 청정 요리 전환이 핵심

현재 스위스와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며, 발행되는 모든 ITMO에는 상응조정이 적용되어 이중계산을 방지할 것

국가 탄소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국제 시장과의 연계도 모색. 말라위의 NDC는 BAU (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51% 감축 목표를 제시, 이 중 45%는 국제 지원이 있어야 달성 가능한 조건부 목표

몰디브는 7월 말 일본과의 공동크레딧제도 (JCM) 협력을 포함한 첫 Article 6.2 보고서를 제출. 승인된 JCM 크레딧은 양국의 NDC에 분할 반영되며, 이를 위해 일본과는 별도의 독자적 JCM 레지스트리를 운영 중

몰디브는 2월 제출한 3차 NDC에서 2035년까지 BAU 대비 152만 톤 감축을 약속했으며, Article 6 시장을 활용해 국내외 감축 활동을 확대 하려는 계획을 밝힘.



# 국제 합의 무산 속 UNEP,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의지 강조

유엔 환경계획 (UNEP) 주도로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Global Plastic Pollution Treaty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조약) INC-5.2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됨.

주요 쟁점은 조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할지, 혹은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에 집중할지였음.

대부분의 국가는 생산 상한과 규제를 지지했으나, 산유국이 주도한 소수 국가 그룹과 석유화학 업계는 재활용 중심 접근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함.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를 원료로 하기에 향후 석유 수요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

UNEP는 플라스틱 오염이 토양, 하천, 바다,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대응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힘.

금번 협상은 결렬됐으나, 국제사회가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



# ICE, D&B 데이터 활용해 비상장기업 기후 리스크 분석 확대

글로벌 거래소·금융시장 인프라 회사 ICE가 미국의 대표적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회사 Dun & Bradstreet (D&B)의 데이터를 활용, 전 세계 500만 개 이상 비상장 기업의 기후 리스크 분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힘.

기존의 상장사, 채권 등 공개 데이터 중심 커버리지에 비상장 기업을 포함시켜 기관투자자의 ‘데이터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핵심

업데이트된 서비스는 D&B의 비상장 기업 데이터를 ICE의 지리 정보 플랫폼과 기후 리스크 모델에 결합해 제공됨.

해당 모델은 홍수, 산불, 허리케인 등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 규제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위험 (전환 리스크)을 모두 분석

또한, 플랫폼에는 Scope 1·2·3 배출량 데이터가 포함돼 배출 강도와 잠재적 전환 리스크 분석이 가능

동 데이터는 배출량 정보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과 다중 자산군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JAL, SAF 환경가치 거래 플랫폼 첫 실험 완료

일본항공 (JAL)이 지난 8개월간 나리타공항에서 SAF (지속가능 항공연료) 환경가치 거래 플랫폼을 시험 운영하며 첫 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힘.

동 플랫폼은 항공사가 SAF를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감축 효과를 ‘환경가치(credit)’로 전환, 등록·거래·계약·이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항공사 외 다른 기업이 이를 구매해 Scope 3 배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SAF의 고비용을 여러 기업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

이번 시범에는 이토추상사, ENEOS, 닛폰익스프레스, 미즈호은행, 나리타국제공항 등이 참여해 실제 계약 및 거래를 진행했고, 거래 과정은 검증기관 ClassNK가 투명성과 기능성을 검증

2단계에서는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Scope 3 배출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산업 간 협력과 혁신적 탄소 솔루션을 기반으로 항공업계 전반의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미국 데이터센터 업계,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정 완화 요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회원사로 둔 데이터센터 연합 (Data Center Coalition)은 정부에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에 Federal Clean Energy Tax Credits (연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규정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업계가 신규 전력 확보 차질을 우려하기 때문

AI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규제가 강화될 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연돼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

업계는 현행 규정이 지난 10년간 빠른 성장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만약 규정이 바뀔 경우 2030년까지 약 60GW 규모의 기계화된 태양광 발전 용량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

미 재무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



#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 탄소배출권

###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 탄소 금융조달

###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